트럼프, 사우디 석유시설 피격 군사공격 시사

"범인 누군지알아…장전 완료 사우디로부터 소식 기다려" 배후 의심 이란은 강하게 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요 석유 시설과 유전이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미국이 군사 공격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 예멘 후티 반군이 공격 배후를 자처한 가운데 미국은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어, 그동안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진 미·이란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과 관련해 "범인이 누군지 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검증(결과)에 따라 장전 완료된(locked and loaded) 상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북한의 괌 기지 타격 엄포 때에도 'locked and loaded'란 표현을 사용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이 공격을 일으켰다고 사우디가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떤 조건 하에서 진행할지 등에 대해 사우디로부터 소식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라며 단서를 달았다. 미국으로서는 언제든 군사적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만, 사우디가 드론 공격의 범인을 확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따라 움직일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AFP통신은 "이번 공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고, dpa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보복할 준비가 됐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올리기에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 정부 당국자는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며 아직은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진 않았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미국은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위성사진 판독과 수집된 각종 정보가 이란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위터에서 "우리는 모든 국가에 공개적으로, 그리고 명백하게 이란의 공격을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격받은 사우디 시설의 개수와 드론이 시설을 타격한 각도 등에 근거할 때 드론이 예멘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은 낮고,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CNN에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드론 공격을 받은 사우디 시설이 19곳인 반면 후티가 보유한 드론은 10대에 불과하다며 "무인기 10대로 19개 표적을 타격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공격 배후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란이 사우디 석유 시설을 공격했다는 미국 정부의 언급에 대해 "그런 헛되고 맹목적인 비난과 발언은 이해할 수 없고 의미 없다"고 주장했다고 AP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對)이란 군사작전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 수위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된다. /연합뉴스

인도 남동부서 관광선 침몰 12명 사망·35명 실종

인도 남동부에서 15일(현지시간) 관광용 선박이 침몰해 12명이 숨지고 35명이 실종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메카토티 수차리타 내무장관은 이날 고다바리 지구의 카출루루에서 승객 50명과 승무원 11명 등 총 61명을 태운 채 운항하던 관광선이 고다바리강에서 침몰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입은 14명은 현지 어부들에 구조됐지만,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35명은 실종상태다.

수차리타 장관에 따르면 사고 선박이 최근 홍수로 운항이 금지된 곳에서 영업하다가 사고를 냈다. 그는 "이 배가 어떻게 관광객들을 태우고 영업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다만 용의자들에 대해서는 강경한 조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성조기 든 홍콩 시위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15일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들고 도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9일 시작된 홍콩의 시위는 16일로 100일째를 맞았지만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역전쟁 장기화…中 8월 산업생산 증가율 17년만에 최저 성장률 둔화 속도도 빨라져

장기화하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 산업생산을 비롯한 8월 중국의 경제 지표가 또 부진하게 나왔다.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8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작년 동월보다 4.4% 증가했다. 8월 증가율은 2002년 2월(2.7%) 이후 17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시장 예상치(5.2%)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중국 정부의 올해 산업생산 증가율 관리 목표는 5.5~6.0%다.

1~8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5.6%로 아직은 목표 범위 안에 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산업생산 증가율이 더 낮아지고 있어 목표치 달성을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은 산업생산 증가율이 17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을 두고 "무역전쟁과 수요 감소 충격 속에서 경제가 더 약화할 수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다른 주요 경제 지표들도 모두 시장 예상에 못 미쳤다. 8월 소매판매는 작년 동월보다 7.5% 증가하는 데 그쳐 전달(7.6%)과 시장 예상치(7.9%)보다 모두 낮았다.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 견인 효과가 가장 큰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책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충격의 여파 속에서 올해 들어 중국의 경기 둔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은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악인 6.2%까지 떨어져 올해 경제성장률 마지노선을 6.0%로 정한 중국 정부는 현재 비상에 걸렸다.

앞서 발표된 다른 경제 지표들도 미·중 무역전쟁 충격 속에서 중국 경제가 받는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7~8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증가율은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98〉 범질

범질(范質, 911~964)의 자는 문소이며 현 하북성 형태시 위현에 해당하는 대명종성 출신이다. 오대 후주부터 북송 초기까지 재상을 역임했다. 북송 초기 정치 안정에 기여했다.

부친 범수이는 하남성 정주방어판관을 역임했다. 범질이 태어난 날 저녁 무렵 모친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신선을 만나 오색 붓을 받았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글 읽는 것을 즐겨하고 박학다식했다. 9살에 이미 시문에 능했으며 13살에 시경을 학습했다. 후당 장흥 4년(933) 진사에 급제했고 충무군절도사추관에 임명되었다. 이후 승진해 관직이 호부시랑에 이르렀다. 석경당이 936년 후진을 건국해 도읍을 낙양에서 개봉으로 천도했다. 석경당의 신임이 두터운 재상 상유한에게 글을 올리자 기뻐하며 황제에게 상주문을 올려 감사어사로 봉하였다. 상유한이 재상을 물러나 상주로 부임해 태령절도사, 진창절도사로 임명되자 그를 보좌하는 종사관이 되었다. 상유한이 재차 재상으로 기용되자 주객원외랑, 직사관으로 승진하였다. 이후 한림학사에 임명되고 비부랑중, 지제고의 직책을 맡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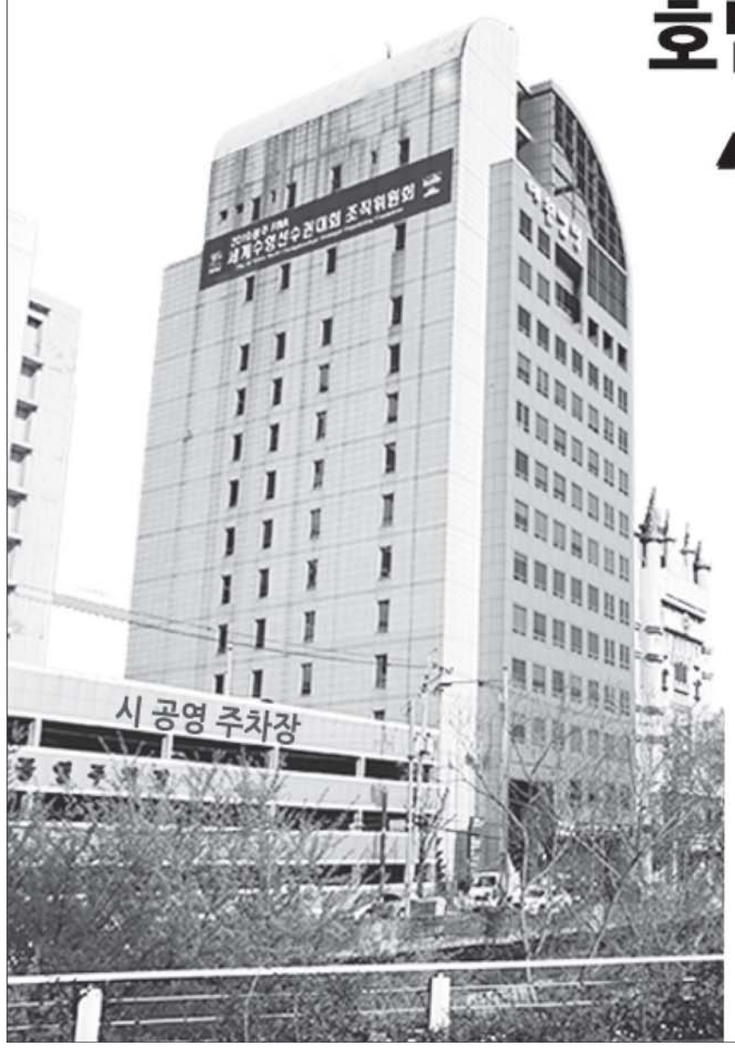
오대 후주부터 북송 초기까지 재상 역임

석경당이 죽자 제왕 석중귀가 뒤를 이었다. 대거란 강경론자인 경연광이 권력을 잡았다. 경연광은 거란에 보내는 문서에 신이라 칭하지도 않고 거란을 능멸하였다. 거란은 946년 대군을 몰고 남하해 수도 개봉을 공격했다. 황제 석중귀는 유지원 등 15명의 장군을 출정시켰다. 범질이 궁중에서 당직을 서고 있는데 황제는 여러 학사들을 불러 초조령(草詔令)을 작성토록 명하였다. 범질이 답하기를 "궁이 이미 폐쇄되었으므로 여러 사람들을 부르면 기밀이 유출될까 두렵습니다." 스스로 초조령을 작성해 황제에게 보냈는데 문장의 뜻이 분명하고 앞뒤가 잘 맞아 크게 칭찬을 받았다.

951년 후한의 장군 곽위가 후한을 멸하고 후주를 세웠다. 곽위는 그에게 중서시랑, 평장사, 집현전 대학사를 제수했다. 이어서 좌복사, 문하시랑, 평장사, 감수국사로 승진했다. 후주의 세종 시영을 따라 회남 정벌에 참여했는데 조령(詔令)의 대부분을 그가 작성했다. 세종의 측근 두의가 일을 잘못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 범질이 눈물을 흘리며 "두의는 근신인 까닭에 작은 잘못으로 인해 죽여서는 안된다"고 간청했다. 그 덕에 두의는 처벌을 면하였다. 957년 세종의 명을 받아 형벌 법규를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유명한 형통(刑統)으로 북송 형법의 기본이 되었다. 당나라의 율(律)과 율소(律疏)를 토대로 송의 제도와 부합되도록 손질하였다. 명례, 위금, 직제, 호혼 등 12개 율로 구성되었다.

959년 세종이 유주 정벌을 앞두고 급사했다. 향년 37세로 아들인 시종훈은 7세에 불과했다. 조광의, 조보 등이 모의해 금군의 수장 조광윤을 새 황제로 옹립했다. 소위 진교병변(陳橋兵變)이다. 그는 조광윤에게 "선제 세종께서 당신을 아들처럼 대해 주셨는데 지금 그의 유해가 식지도 않은 상태로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라고 항의했지만 이미 대세가 기울었음을 인식했다. 결국 선양의 형식으로 제위에 오를 것을 권하였다. 특히 "태후를 어머니처럼 섬기시고 어린 군주를 아들처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조 조광윤은 그를 계속 재상에 기용했다.

태조에게 황제의 동생인 태평군절도사 조광의와 가주방어사 조광미의 재주를 높이 사 봉책을 내려 작위를 하사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단명전학사 여여경, 추밀부사 조보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정통하고 충성심이 있으니 요직을 맡길 것을 건의했다. 963년 대례사에 임명되어 제사 제도의 기틀을 잡았다. 964년 정월 관직을 사임하고 태자태부에 제수되었다. 9월 세상을 떠났다. 임종시 아들 범욱에게 조정에 시호를 요청하지 말고, 묘비는 새기지 말도록 당부했다. 태조는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하루 조회를 쉬고 중서령에 추증하였다. 비단 5백 필과 곡물을 하사해 장례를 치르게 했다. 청렴하고 강직해 사람들의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또한 녹봉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곤 했다. 사후 집에 남아있는 돈이 없었다고 한다.



호남동 대원빌딩 층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1 휘트니스센터,레저스포츠 시설
2 특급 한방병원,공공기관 사무실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4 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